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한 두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불교계 신행, 포교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에게 새해 발원을 들어 보았다.

생활현장의 발원 “최선 다하는 불자 되겠습니다”

“여자 종립학교 하나 더 있었으면”

대구능인고등학교 교법사 아용스님



아용스님에게 새해 소망이 두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대구에 여자 종립학교가 하나 더 생겨 많은 학생들이 불법을 만나게 되길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젊고 능력 있는 후배 스님

“평생토록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변치 않는 여인” 능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용스님을 부르는 별칭이다. 아용스님이 대구 능인고등학교에서 교법사 생활을 시작한 것도 벌써 12년째. 교육에 대한 막연한 열정만으로 처음 학교에 부임해 학생들과 만남을 가진 스님에게 교육현장은 그리 녹록한 것만은 아니었다. 첫 몇 달간은 짓곳은 아이들의 장난과 스님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질문들에 얼굴 붉어지기가 여러 번이었다.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한 스님에게는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한때 두려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십수년이 흐른 지금 아무리 짓곳은 장난에도 스님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처음 학교에 오보니 매주 1시간씩 있는 종교수업시간이 임시와는 관계없는 과목이라며 자습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하나라도 더 보내면 명문학교로 평가받는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창 커나

들이 교법사에 많이 지원해 학생 포교일선에서 함께 일하는 도반을 얻는 것이다. 종립학교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능인고등학교가 수년내 남녀공학으로 학제를 개편할 것이라는 소식에 작은 위안을 삼을 수 있다. 하지만 12년전 교법사에 임용될 당시도 최초의 스님이었으나, 아직도 교계 유일의 스님교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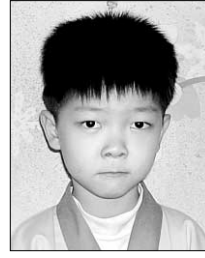
포교일선서 함께 할 후배 교법사 필요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고 싶어

라는 수식어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에 스님의 두 번째 소망은 더욱 간절하다. “도반들이나 후배스님들에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수행과 포교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쉽게 오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스님의 얼굴엔 정말 안타까움이 가득해 보였다. 스님은 또 “산중에 앉아서 참선만 하거나, 성인 신도들만 포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님이 라고 해서 좋아하는 수행방법만 편식하면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진정한 포교와 수행의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아직도 길을 가다가 학생들의 교복자락만 봐도 가슴이 설렌다고 말하는 스님은 “스님, 안녕하세요”라는 학생들의 소박한 인사말에도 진귀한 보석을 지니고 있듯 가슴속이 뿌듯해 집을 느끼게 된다며 새해에도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고,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수행자로서 남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소망했다.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가불자 일색인 종립학교 종교담당 교사에 지난 9년 3월 교계 최초의 스님 교법사로 대구 능인고등학교에 부임한 아용스님은 첫 느낌을 이렇게 회상했다. 교내에서 스님의 인기는 대단하다. 얼마전 있었던 교내 인기투표에서도 아용스님이 다른 선생님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없다. 이처럼 아용스님이 아이들에게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은 남다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용스님은 수업의 중심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단순히 불교교리 하나 더 가르키려 애쓰기 보다는 아이들과 삶의 아름다움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려 노력하고 있다.

박원규 기자 bak09@buddhania.com



부처님께 ‘착한 어린이’ 맹세

최우진(옥수동 연꽃어린이집 원생)

부처님 오신날 미타사에서 절하고 스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스님이 염주도 주시고 사탕도 주셔서 올해도 빨리 부처님 오신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친구들과 선생님이라 소풍도 가고 싶고, 엄마랑 아빠랑 가족 모두가 함께 울 겨울 눈썰매를 꼭 탔으면 좋겠고, 또 배비 시디, 푼푼이 인영도 갖고 싶고 에버랜드에 가서 신나게 놀이구도 탔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말 잘듣고 어린이집 열심히 다니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절에가서 부처님을 만나면 꼭 밭 잘 짓겠다고 맹세할 거예요.



사이버 포교 많은 인연 있기를

신진학(유니텔 불교동호회 대표이사)

인터넷과 PC통신불교동호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을 인연으로 불교를 접하고 다시 산사를 찾는 등 신행활동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신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회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교자료들을 자료실에 올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불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미년에는 더 많은 네티즌들이 불교동호회를 방문해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한 사이버 신행이 더욱 활성화 되고 유니텔 불교동호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버 동호회들이 새해에 더 많은 활동을 해 불교포교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항상 웃음 가득히

오은주(법장사어린이회 지도교사·대학생)

올해는 힘든 것도 많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곧 잊혀져 내년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좋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선생님”하며 쫓아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꽤 뜻 깊은 해였다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범죄를 보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새해가 되면 아이들 전부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다치지 말고 어른들이 만든 환경 속에서 물들어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예쁘고 순수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에는 주위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그들과 언제나 웃음 가득히 하루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사랑·자비 실천하는 한해로

이미성(진각복지재단 과장·성북구의원)

다사다난했던 2002년 임오년을 보내고 2003년 새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국가적으로 월드컵 경기에서 대선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대사가 무사히 치러졌으며, 이 모든 일이 온 국민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축제 한편에는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한해가 되길 진정으로 서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관용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드는 복지인이 되도록 서원합니다.



자립심 키우며 공부에 매진

한진욱(동국대 불교대학 신입생)

어린시절 어린이회, 중등부 학생회를 다닌 것과 큰아버지가 스님이던 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대학에 진학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학, 선학, 인도철학을 다양하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한 두 번 서울에 가 본 경험은 있지만 막상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는 만큼 자립심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서 대학생활도 열심히하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 부모님께 성숙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군포교 프로그램 개발 노력

한연수(조계종포교사단 군포교특별위원장)

올해 포교사단은 해외를 비롯해 전국의 6개 지역에서 16개 분야별 팀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군포교팀은 전국의 72개소의 군법당에 많은 도움을 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포교원에서 정한 ‘군포교 진흥의 해’ 원년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군포교사들은 법회 프로그램 개발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군포교를 위해 더욱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내에서는 타종교가 쌍끌이 원앙어선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쪽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고 있는 우리 포교사들에게 새해에는 더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흐르듯 불법전파 하고 싶어

황창원(방송인·시인)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지금까지 시사, 음악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맡아 온 것은 라디오 방송이 불특정 다수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달할수 있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복스튜디오 황창원입니다’는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30-50대 보살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는 등 불자들의 반응이 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항상 그러해 왔듯이 방송을 통해 부드럽고 편안하고 물 스쳐가듯 불법을 최대한 전달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6번째 시집과 명상산문집을 낼 계획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덮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독자의 머릿속에 남을수 있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승 목표...명예전당 꼭 오를 것

박세리(프로골퍼·테일러메이드)

새해 초에 공장 미국으로 가서 본격 훈련에 돌입합니다. 새해 소망을 꼭 이루기 위한 첫 훈련이죠. 저는 2003년 7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02년에는 5승을 했는데 2승 정도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러나 골프란 운동을 욕심을 가질수록 더 힘들기에 늘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과 일어나서의 관공기도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계속 할 겁니다. 프로골퍼로서 가장 큰 소망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5승만 보태면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 포인트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명예의 전당을 향한 디딤돌을 확실하게 굳히고 싶습니다. 한국의 스포츠인 모두에게 행운을 빌겠습니다.